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 검찰국장 박균택

문재인 대통령, 검찰 인사 단행... 검찰개혁 본격화 한 듯 이영렬·안태근은 부산고검·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 서울중앙지검장 '고검장급→검사장급' 격하



윤석열 서울중앙



박균택 검찰국장

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검찰 개혁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격하시켰다. 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검찰 인사 단행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촉발된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검찰과 법무부 해당 간부들에게 검찰을 지시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시작됐지만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부분과 떼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51·21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는 내용의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돈봉투 만찬 당사자인 이영렬(59·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

했다. 이번 인사의 유일한 승진자인 윤 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지검장은 일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 지검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가 정식 1개월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당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 내는 등 활약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번에 검찰 넘버인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대검 형사부장에서 자리를 옮긴 박 검찰국장은 광주 출신으로 11년 만의 호남 출

신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다. 역대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사례는 지난 2006년 당시 문성우 법무부 국장이 마지막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적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 수석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며 윤 지검장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박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해 향후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문재인 대통령 파격인사 '진행중' 경제부총리, 김동연 총장 외교부장관, 강경화 특보 안보실장, 정의용 전 대사 정책실장에 장하성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 대전고검 검사를 앉히며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 화제를 모은 데 이어 21일에는 경제와 외교안보분야를 두 축으로 하는 후속 인선에서 깜짝 인사를 나열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날 김동연(61) 아주대 총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강경화(63) 유엔사 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외교부 장관으로 각각 지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에는 각각 정의용(71) 전 주재네바다대표 대사와 장하성(65)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실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던 문정인(67) 연세대 교수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고, 대미(對美) 특사인 홍석현(69) 한반도포럼 이사장도 외교안보특보로 발표했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인선은 '과격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김 총장은 정책실장 등 핵심 요직에 꾸준히 거론되며 어느 정도 가능성을 할 수 있었다면,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 보좌관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의 인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사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깜짝 발탁의 패턴을 보였다. 정 신임 안보실장은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외교·안보분야 콘트를 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정책실장의 경우에도 '안철수의 멘토'를 지낸 장 교수를 앉히는 파격적인 실수를 했다는 평가가 있다.

김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정몽 경제관료 출신이다.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 시작, 차관을 역임하는 등 경제계·학계·정계에서 두루 인정 받는 경제전문가로 평가된다. 남다른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으로 예산과 재정, 정책에 모두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 보좌관의 경우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여성 첫 외교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강 후보자는 한국 여성으로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지난 1월 한국 여성으로는 최고위직인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특보로 임명됐다. 1999년에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 수장을 맡게 된 정 안보실장은 새 정부의 안보정책을 이끌 책임자로 일찌감치 내정이 예정돼왔다. 문 대통령의 외교자문단인 '국민안그래프' 단장 출신인 정 실장은 외교·안보정책의 틀과 방향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금모(51·사법연수원 21기)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에 불옥(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보좌할 법무비서관에 김형연(51·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뉴시스

文,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회동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는 당에서 우익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5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공식적인 회의 의제 없이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삼경례 자리였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생각들을 자유롭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하고 있다. 김동철(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익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文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김이수 대행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사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재소장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허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깬 사건으로 평가받는 '김영희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고용으로 불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 성향으로도 분류된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

약자·소수자 보호 판결 진보 성향 통진당 해산사건 당시 반대 의견 내

서 주목받았다. 한·미 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던 중 이정미 전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함에 따라 지난 3월 14일부터는 헌재소장 대행으로 선출돼 일해 왔다. /뉴시스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